

보도자료

제목	2025 백남준아트센터 학술 프로그램 '48시간 음미체 학교' 개최		
문의	행사 및 취재 : 김지수 학예연구사 t.031-201-8542 m.010-6750-0450		
배포	2025. 7. 16.	쪽수	총 8매

2025 백남준아트센터 학술 프로그램 '48시간 음미체 학교' 개최



- 백남준의 예술세계에 새롭게 접근하는 2025년 학술 프로그램 '48시간 음미체 학교' 선보여 (7월 18일~ 20일)
- 음악·미디어·신체를 융합하여 이론과 실천이 교차하는 수행적 연구의 장 마련
- 알렉산드라 주하즈, 그랜트 볼머, 원재연, 모어(모지민) 등 국내외 연구자·예술가 13팀 (20인) 참여, 누리집 통해 사전 예약 가능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박남희)는 새로운 백남준 연구를 위해 2025년 학술 프로그램 '48시간 음미체 학교'를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음악·미디어·신체를 아우르며 수행적 연구의 장을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에는 김상민, 김지수, 그랜트 볼머, 모어, 백남

준, 신비밴드(수정귀·빠른해), 신예슬, 알렉산드라 주하즈, 원재연·타무라 료, 이수영, 이우만,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하은빈 등 국내외 연구자 및 예술가 13팀(총 20명)이 참여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1965년 독일 파르나스 갤러리에서 8명의 플럭서스 작가가 24시간 동안 각자의 퍼포먼스를 지속하며 함께 밤을 새웠던 '24시간(24 Stunden)' 처럼, 연구자, 예술가 그리고 관객이 시간·연대·수행이라는 새로운 물질성을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날인 18일에는 백남준이 1977년 한정판으로 발매한 LP 음반 '나의 축제는 거칠 것이 없어라(My Jubilee ist Unverhemmet)'를 함께 듣는 감상회인 '축제는 밤을 향해 열린다'가 오후 6시부터 진행된다. 이 음반에는 쇤베르크의 '정화된 밤'을 네 배 느리게 녹음한 소리가 담겨 있다. 약 20분에 걸쳐 LP 음반을 감상한 후, 음악평론가 신예슬과 모더레이터 김지수 백남준아트센터 학예연구사가 쇤베르크와 백남준의 음악을 중심으로 대담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7시부터는 백남준아트센터 1층 로비에 위치한 'TV 정원' 앞에서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KCO)가 쇤베르크의 원곡을 현악 6중주로 연주한다.

19일에는 알렉산드라 주하즈 뉴욕시립대 교수의 미디어 워크숍 '매개된 함께-있기, 비디오 구하기'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지루한 비디오, 나쁜 TV'를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린다. 김상민 연세대 객원교수, 그랜트 볼머 메릴랜드대 교수, 이수영 전 백남준아트센터 학예연구사가 발표자로 나선다. 김상민은 "AI 알고리즘 기반 예술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의 취향과 감성, 그리고 이로 인해 달라질 예술 창작의 방향성에 대해 몇 가지 관점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랜트 볼머는 알고리즘과 플랫폼을 중심으로 영상과 텔레비전의 통계 기반 정보화 경향을 분석하며, 이러한 통계적 정규화가 실리콘밸리부터 K-팝 산업에 이르기까지 동시대 미디어 전략의 핵심 논리임을 "인공지능의 통계적 물질성과 스트리밍 비디오의 진부함"을 통해 조명한다. "나쁜 비디오의 바다"를 발표하는 이수영은 백남준의 '임의 접속 정보'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알고리즘에 의해 통제되는 오늘날의 비디오 환경 속에서 비디오의 물질성과 역사, 그리고 새로운 비디오 문화의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탐색한다.

저녁에는 약 2시간 동안 원재연과 타무라 료, 신비밴드, 모어(모지민)가 참여하는 퍼포먼스 '오신(娛身)의 밤'이 열린다. 원재연과 타무라 료는 백남준의 "카타르시스를 만들어 내는 충격, 극한에 이른 전자적 충동과 놀라움"을 키워드로 삼아 다양한 타악기를 매개로 순간적 감각의 에너지를 표현하고자 한다. 수정귀와 빠른해로 구성된 실험즉흥듀오 신비밴드는 퍼포먼스 '소리의 귀'를 통해 음악과 춤이 구분되기 이전의 원시적 알갱이를 주제로 한 실험적 공연을 선보인다. 드랙 아티스트인 모어는 백남준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무용과 드랙을 결합한 독특한 퍼포먼스를 펼친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조류 세밀화 작가 이우만과 함께하는 'TV 정원 탐조'가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TV 정원 탐조'는 백남준아트센터 인근의 공원과 산을 따라 여름철 산새와 도시새를 관찰하는 탐조 프로그램이다. 오후에는 하은빈의 즉흥 움직임 워크숍 '플러스-마이너스: 기억하는 시간과 망각하는 몸짓'으로 프로그램이 마무리된다. 하은빈의 움직임 워크숍에서는 기억과

기록의 매체인 비디오와 망각과 소멸의 매체인 무용을 교차시켜, 워크숍 참여자들에게 감각의 전환을 경험하도록 한다.

박남희 백남준아트센터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현재적 관점에서 새롭게 탐색하고, 음악과 미디어, 신체가 만나는 열린 실험의 장으로, 48시간 동안 참가자들은 세계와 물질의 낯선 소리와 어색한 몸짓의 다성적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을 권장한다. 일부 퍼포먼스는 청소년 관람이 제한된다. 자세한 정보는 백남준아트센터 누리집(njp.ggc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48시간 음미체 학교' 행사 개요

- 행사명: 48시간 음미체 학교
- 행사기간: 2025년 7월 18일(금) ~ 7월 20일(일), 3일간
- 행사장소: 백남준아트센터 내·외부
- 참여자: 김상민(연세대학교), 김지수(백남준아트센터 학예연구사), 그랜트 볼머(메릴랜드대학교), 모어(드랙 아티스트), 백남준, 신비밴드(퍼포머), 신예슬(음악평론가), 알렉산드라 주하즈(뉴욕시립대학교), 원재연·타무라 료(퍼포머), 이수영(전 백남준아트센터 학예연구사), 이우만(작가),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연주단체), 하은빈(퍼포머)
- 주최/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문화재단
- 참가: 무료, 백남준아트센터 누리집 사전예약
- 문의: 031-201-8542
- 세부일정

	7/18(금)	7/19(토)	7/20(일)
9시		워크숍 9:30~11:00 (알렉산드라 주하즈)	탐조 10:00~12:00 (이우만)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국제 심포지움 13:00~17:30 (이수영, 김상민, 그랜트 볼머)	움직임 워크숍 14:00~18:00 (하은빈)
15시			
16시			
17시			
18시	LP 음악 감상회 18:00~19:00 (백남준, 신예슬)	퍼포먼스 18:00~20:00 (원재연&타무라 료, 신비밴드, 모어)	
19시	<정화된 밤> 연주 19:00~19:30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48시간 음미체 학교' 주요 프로그램

■ LP 음감회 '축제는 밤을 향해 열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 백남준, 신예슬(모더레이터: 김지수) ○ 참여자소개 : 음악평론가로 서울대학교에서 음악학을 공부했고 『음악의 사물들: 악보, 자동 악기, 음반』을 썼다. 경향신문, 월간 국립극장, SPO, 클럽발코니에 글을 연재하고 종종 기획자, 드라마터그, 편집자로 일한다. ○ 일 시 : 2025.7.18. 금요일 18:00-18:40 ○ 장 소 : 백남준아트센터 1층 랜덤 액세스 홀 ○ 대 상 : 일반 관람객 (선착순 60명) ○ 신 청 : 백남준아트센터 누리집
<p>신예슬</p>	

■ '정화된 밤, Op.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 참여자소개 : 1965년에 서울바로크합주단 명칭으로 창단되어 음악감독 김민과 함께 폭넓은 레퍼토리 확장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챔버오케스트라로서 그 위상을 이어 나가고 있다. ○ 일 시 : 2025.7.18. 금요일 19:00-19:30 ○ 장 소 : 백남준아트센터 1층 로비 ○ 대 상 : 일반 관람객 (선착순 200명) ○ 신 청 : 백남준아트센터 누리집
<p>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p>	

■ 미디어 워크숍: '매개된 함께-있기, 비디오 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 의 자 : 알렉산드라 주하즈(Alexandra Juhasz) ○ 강의자소개 : 뉴욕시립대학교(CUNY) 브루클린 컬리지의 영화학 교수로, 정치적 변화와 개인 및 공동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미디어 실천을 주로 연구한다. 뉴욕대학교에서 영화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에이즈 TV』(1995), 『유튜브에서 배우기』(2011) 등을 저술하였다. ○ 일 시 : 2025.7.19. 토요일 9:30-11:00 ○ 장 소 : 백남준아트센터 2층 세미나실 ○ 대 상 : 일반 관람객 (선착순 60명) ○ 신 청 : 백남준아트센터 누리집
<p>알렉산드라 주하즈</p>	

■ 국제 심포지엄: '지루한 비디오, 나쁜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 표 자: 김상민, 그랜트 볼머, 이수영 ○ 일 시: 2025.7.19. 토요일 13:00-17:30 ○ 장 소: 백남준아트센터 2층 세미나실 ○ 대 상: 일반 관람객 (선착순 60명) ○ 신청방법: 백남준아트센터 누리집
 <p style="text-align: center;">김상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 표 자 : 김상민 ○ 발표자소개 :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 기술, 미디어, 예술의 접점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비)인간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문화연구자다. 고등과학원 초학제연구 프로그램에서 비인간 연구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발 표 주 제 : AI 알고리즘 기반 예술의 미래
 <p style="text-align: center;">그랜트 볼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 표 자 : 그랜트 볼머(Grant Bollmer) ○ 발표자소개 : 메릴랜드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로, 디지털 미디어를 연구한다. 감정 인지, 셀피, 밈, 인플루언서, 비디오게임, 모션 픽처, 가상현실과 공감 등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현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최근 『신유물론과 유물론: 미디어의 물질성에 대하여』가 국내에 번역되었다. ○ 발 표 주 제 : 인공지능의 통계적 물질성과 스트리밍 비디오의 진부함
 <p style="text-align: center;">이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 표 자 : 이수영 ○ 발표자소개 : 백남준아트센터 전 학예연구사로,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매개로 대중과 소통하는 동시에 기술철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전시와 학술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 발 표 주 제 : 나쁜 비디오의 바다

■ 퍼포먼스: '오신(娛身)의 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작가: 원재연·타무라 료, 신비밴드, 모어 ○ 일 시: 2025.7.19. 토요일 18:00-20:00 ○ 장 소: 백남준아트센터 1층 로비 ○ 대 상: 일반 관람객 (일부 공연 청소년 관람 제한, 선착순 200명) ○ 신청방법: 백남준아트센터 누리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 포 머 : 원재연, 타무라 료 ○ 퍼포머소개 : 원재연은 전통 타악을 기반으로 인디, 전자음악, 전시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실험 예술가이자 싱어송라이터로, 관객과의 교감을 중심에 두고 활동한다. 타무라 료는 전통과 현대를 혼합한 감각적 타악연주로 사운드, 무용, 시각예술 등 다양한 장르와 협업하며, 소리와 신체, 자연의 파동을 매개로 세상과 소통하는 사운드 아티스트이다. ○ 작 품 명 : "정원의 아이들" July 19, 2025 vol.1
<p>원재연</p>  <p>타무라 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 포 머 : 신비밴드(수정귀, 빠른해) ○ 퍼포머소개 : 수정귀CrystalEar와 빠른해EarlySun로 구성된 실험즉흥듀오다. 2016년도부터 바리나모 사운드로 은밀히 사운드/음악 작업과 공연을 해오다가 2021년 신비밴드로 이름을 바꾸었다. 2021년 신촌극장에서 첫 콘서트를 시작으로 신비가 가득한 세상의 소리와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 ○ 작 품 명 : 소리의 귀
<p>신비밴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 포 머 : 모어(모지민) ○ 퍼포머소개 :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발레를 전공했다. 낮은 곳에서 힘을 신고 높은 곳에서 토슈즈를 신는 그는 무용과 드랙, 주류와 비주류에서 꾸물거리거나 뽀박질하고 있다. 자서전 『털 난 물고기 모어』를 썼고 그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모어>가 부산국제영화제 등 유수 영화제에 초청받았고, 주요 영화제에서 수상했다. ○ 작 품 명 : 남준 오라버니와 끼순이
<p>모어(모지민)</p>	

■ 워크숍: TV 정원 탐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작가 : 이우만 ○ 작가소개 : 회화를 전공한 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러스트 작업을 해오다 우연히 생태 에세이의 삽화를 맡으며 생태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후 20여 년간 새를 관찰하고 기록하며 그림과 책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전하고자 한다. ○ 일 시 : 2025.7.20. 일요일 10:00-12:00 ○ 장 소 : 백남준아트센터 인근 야외 ○ 대 상 : 일반 관람객(선착순 18명) ○ 신청방법 : 백남준아트센터 누리집
이우만	

■ 즉흥 움직임 워크숍: '플러스-마이너스: 기억하는 시간과 망각하는 몸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강사 : 하은빈 ○ 강사소개 : 글을 쓰고 공연을 한다. 산문집 『우는 나와 우는 우는』을 썼고 일라이 클레어의 『눈부시게 불완전한』을 우리말로 옮겼다. 공연 <한 방울의 내가> 등에서 움직임을 만들었다. 불구의 몸, 상한 마음, 잘못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 일 시: 2025.7.20. 일요일 14:00-18:00 ○ 장 소 : 백남준아트센터 1층 ○ 대 상 : 일반 관람객(선착순 15명) ○ 신청방법 : 백남준아트센터 누리집
하은빈	